|  |
| --- |
| **1. 주제**  메타버스, 빅데이터, AR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개발 제안  **분반, 팀, 학번, 이름**  오픈소스기초설계(나), 5팀, 20180381, 윤승회 |

|  |  |
| --- | --- |
| **2. 요약**  - 목표    사용자가 편안하게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는 것.  - 핵심 내용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VR, AR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경험을 느끼게 하는 것.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직원처럼 인공지능이 옷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  - 중요성 (e.g. 기대되는 효과)  옷을 가장 만족스럽게 사는 방법은 입어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메토어는 옷을 입어보지 않더라도 VR, 스마트폰의 카메라만 이용하면 옷을 직접 입지 않더라도 입어본 경험과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사용자는 힘들지 않게 여러 벌 옷을 입어볼 수 있고, 사용자의 소비를 더욱 이끌어 낼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매출 증가의 효과가 기대된다. | **3. 대표 그림**  그림 1. 세계를 무한 확장하는 메타버스  그림 2. 거울에 AR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미러 |

|  |
| --- |
| **4. 서론**  2019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장악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였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었다.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유행하였고, 학생들은 학교로 등교하는 것 대신 화상채팅에 접속했다. 가족들은 외식을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 대신 집안에서 배달을 통해 아쉬움을 달랬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생활패턴이 바뀌게 되었다.  사람들의 소비패턴은 의류, 식품, 주거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증가한 것은 아니다. [1] 논문에 따르면, 2020년, 2021년 상품군별 증감률은 다음과 같았다. 자동차용품(+111.2%), 음식 서비스(+56.4%), 농축수산물(33,8%, 43.0%)로 증가한 반면 패션용품(-22.5%), 액세서리(-22.3%), 화장품(-13.6%)로 감소하였다. 패션용품, 악세서리, 화장품의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나와 잘 어울리는지, 실제 착용하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1년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의 평균 반품률은 20.8%을 기록했다. 5명 중 1명은 제품을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멧 세킵 알투스 조지메이슨 대학 교수는 “과거 소매업자들은 판매 후에 일을 관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반품률이 크게 높아졌고, 이는 더이상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하였다. 반품률이 증가하는 요인 중에ㅡㄴ  **- 문제 정의 (10점)**  - 극복 방안 (10점) |

|  |
| --- |
| **5. 본론 (1장 이내)**  - 시스템 개요 그림 1개 이상 (10점)  **- 필요한 기술 요소 설명 (10점)**  - 구현 방법 및 개발 방향 (10점) |

|  |
| --- |
| **6. 결론**  - 보고 내용 요약  - 향후 할일 정리 |

\* 7번 출처 제외 총 3장 이내 (파란색 글은 삭제 할 것), 기한 내에 제출 할 것 (10점)

**7. 출처**

[1] 조휘형, “코로나19 팬데믹이 온라인쇼핑 상품군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제 22권, 제 2호 통권권, 제 74호, pp, 243-254, (2022.04).

[2] 성덕현 외 3명,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의 반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확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 21권, 제 4호, pp, 17-30, (2021.08).

[3] 김상훈, 박계영, 박현정, “정보탐색과 구매 단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선택의 영향 요인”, 한국유통학회, 유통연구 제 12권, 제 3호, pp, 69-90, (2007.07).

그림 1 : <https://www.hyosungfms.com/fms/promote/fms_news_view.do?id_boards=13645>

그림 2 : <https://www.tinnews.co.kr/14528>